

PI첨단소재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 방열시트용 매출 2021년 이후 분기 최대 판매 기록
- FPCB용 및 첨단산업용 매출은 전년 동기 수준 매출 기록
- 경영실적 개선과 대규모 증설 완료로 현금성자산 지속 증가 중

<2024-11-01>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국내 폴리이미드(PI) 소재 전문기업 PI첨단소재(178920)가 2024년 3분기 매출액 707억원, EBITDA 204억원, 영업이익 121억원, 순이익 64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15.1% 증가하였고, EBITDA는 9.8%p, 영업이익은 10.2%p, 순이익은 2.0%p 증가했다. 특히 방열시트용 매출은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1년 이후 분기 최대 판매를 기록, 전년대비 실적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용도별로는 방열시트용 매출이 지난 분기에 이어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66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57.5%, 전분기 대비 18.1% 증가, 최근 3개년 중 분기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분기 매출을 견인한 반면, FPCB용 매출은 신제품 출시 효과가 기대치를 하회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0.8% 감소한 285억원을 기록했다. 첨단산업용 매출은 EV/2차전지 수요의 정체로 전년동기 대비 1.5% 감소한 155억원을 기록했으나, 반도체용 필름 매출이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의미 있는 성과 역시 거뒀다.

경영실적 개선과 대규모 증설 완료에 따라 현금성자산은 증가했고, 차입금 상환 효과로 인해 유동비율은 195.3%에서 218.5%로 증가하고 부채비율 역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며 재무 건전성은 이번 분기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PI첨단소재 관계자는 “4분기는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으로 계절적 비수기 효과가 예상되나, 내년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신제품 관련 수요에 대응하며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망이다.”라며, “이번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반도체용 필름의 수요가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배터리 절연용 필름의 해외 수출 확대 등으로 비수기 효과를 최대한 상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I첨단소재는 구매처 다변화를 통해 외부 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성에 사전 대응하는 등 원가 관리를 최적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부가가치 제품을 포함한 신제품의 고객 인증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신규 수요 창출에 따른 매출처 확대 역시 기대된다. 또한, 2028년까지 모바일 외 제품군의 매출 비중 50% 이상, 바니쉬 및 성형품의 매출 비중 20% 이상 달성과 함께 30% 이상의 EBITDA 이익률을 회복하겠다는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형품 글로벌 판매 확대와 최대주주와의 신사업 공동 개발 및 R&D 협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친환경경영 전략을 수립을 위해 지난 분기 착수한 주요 제품 대상 LCA 평가는 4분기 중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자료문의: PI첨단소재 한경완 과장 (02-2181-8635)**